

진시황과 불로초의 이야기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늙지 않기를 바라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어 결국 노인이 되게 되며 노인이 됨으로써 사회적 은퇴에 따른 경제력의 감소, 고립감 및 이에 따른 정서적 문제, 질병 등에 의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질병으로 부터의 자유야 말로 모든 노인층의 바람일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전체인구중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게 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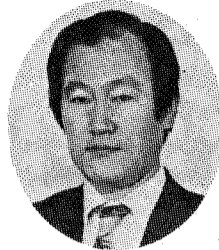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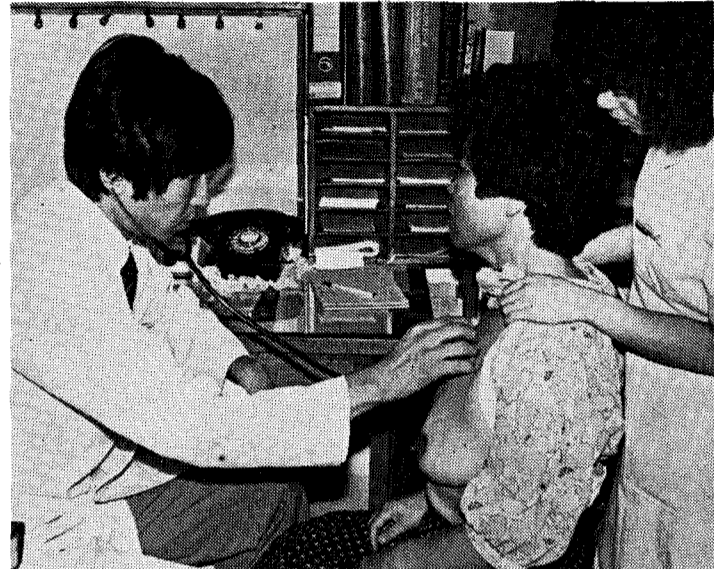
노인에게 엄습하는 질환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순환기질환이다. 노인성 순환기질환중 죽상경화에 의한 관동맥질환의 경우 다른 연령층의 관동맥질환과 본질적으로는 같으나 흔히 비전형적인 임상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협심증의 증상이 흉통이 아닌 호흡곤란, 전신쇠약감 및 실신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심근경색이 흉통을 동반하지 않거나 갑작스런 심부전, 악성부정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예후에 있어서 젊은 연령층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노인층이라 하여 수술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를 회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고혈압도 노인층에서 흔히 동반되는 질환으로 이는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뇌출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혈압치료를 위한

# 늙음에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유의

약물요법시 노인층에 있어서는 신기능 감소에 따른 약제의 분포, 배설이 다른 연령층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많은 경우  $\beta$ 수용체단제 등에 대한 효과가 감소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약제 선정에 고려하여야 하며 부작용으로 우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약제의 경우 노인층에서는 이

효과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노인층 고혈압 치료시 흔히 당면하는 문제로 이완기혈압은 정상이면서 수축기 혈압만이 상승되어 있는 단축수축기고혈압이 있는데 이의 치료에는 약간의 이론이 있기는 하나 이완기 혈압이 정상이면서 수축기혈압이 180



李 迎 雨  
(서울医大 내과교수)

mHg이하인 경우, 약물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더 많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관동맥질환, 고혈압이외에 노인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순환기질환으로써 동기능부전증후군이나 전도장애 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어지러움증 실신 등을 호소할 수 있다. 이들중 많은 경우 인공심박조율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이를 방지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 및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선천성 심질환, 판막질환이나 심내막염 등도 노인이 되어서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노령에 따른 다른 신체적조건이 좋지 않아 치료시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들 가운데 차지하는 위상의 문제로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하는 입장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일차적 심질환은 아니나 많은 수의 노인에게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폐성심이 병발할 수 있는데 이는 폐기능호전에 따른 폐동맥고혈압의 완화가 일차적 치료목표임으로 폐질환의 치료에 일차적 중점을 두어야 한다. 순환기질환이외의 질환을 치

# 노인의 순환기질환

료하는 가운데에서도 원인질환의 치료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간 활동을 시키지 않는 경우 심부정맥혈전에 의한 폐색전증이 병발하여 원인질환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영어단어중 슬픈단어 네가지를 열거하면 "늙음" "가난함" "병들" "외로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노인층에서의 질병은 당사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의 하나이다. 점점 사회에서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져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들의 관심을 좀 더 이런 노인층의 질환에 대해 가져야 하겠으며 당사자인 노인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앞으로 늙었을 때를 대비하여 건강관리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 <12면에서 계속>

균, 소화성 궤양, 산부인과적 질환, 방광염, 심폐질환, 당뇨병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의 대사성 질환을 포함한 많은 질환이 있다.

6) 치료: 치료에 의해 증상의 완화 등의 도움이 되지만 완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재발이 자주 나타난다. 정기적인 의사와 면담을 통한 정신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로 하여금 이 질환이 일반적으로 염증성 장 질환이나 암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상의 악화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 질환을 대처하

는데 도움이 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이 되면 정기적인 진찰과 대변검사를 적절한 기간 간격으로 시행하면 적당하고 자주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방사선학적 검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대변양을 막게하는 약제가 도움이 되고 복통이 있는 경우 항경련제의 사용으로 증상의 완화를 보일 수 있다. 신경안정제나 항우울제의 사용으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고 최근에 대장 운동의 정상화를 위한 여러 약제가 소개되고 있으나 아직 그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고 있다.

아직까지는 모든 약제에 의한 치료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식사요법이나 약

제가 없으나 식사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식사의 종류를 자세히 관찰하여 증상의 유발이나 악화를 일으키는 음식은 절제하는 것이 증상치료에 도움이 된다. 약제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변화 있게 처방하게 된다. 끝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자자와 보호자, 의사의 협조로 꾸준한 노력으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로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적인 안정과 자신감을 줌으로써 환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상인과 똑같은 생리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것도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면역기능과 효소의 寶庫



보사부제 12-2 호

맥주효모에 비타민E, C와 메치오닌을 강화시킨 미생물식품



### ■ 리포마-에이<sup>®</sup>는

면역기능에 특히 중요한 영양소—  
특수다당체, 핵산, 비타민 E, C 등이 풍부합니다.

### ■ 리포마-에이<sup>®</sup>는

인체의 모든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효소의 재료영양소—  
비타민 B군, 미네랄, 미량원소, 식물성단백질이 풍부합니다.

### ■ 리포마-에이<sup>®</sup>는

건강유지 및 회복에 있어 지름대역활을 하는 면역기능과 효소의 완벽한 영양집결체 입니다.

채질개신식품 전문생산업체  
**[주]한국바이오에너지**  
Korea Bio-Energy Co., Ltd.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3-4  
TEL (02) 547-7056  
FAX (02) 548-0264

- 서울경기동부총판 295-3336
- 서울경기서부총판 663-8836
- 서울경기남부총판 679-8107
- 서울강남총판 553-0042-3
- 인천총판 (032) 424-4939
- 부산경남총판 (051) 246-7432
- 대구경북총판 (053) 252-0076
- 광주전남총판 (062) 232-7393
- 전북총판 (0652) 86-6117
- 충남북총판(예산) (0458) 33-1977
- 대전총판 (042) 255-0144